



탬파베이 레이스의 김하성이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와의 안방 경기 2회 말에서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탬파베이=AP 연합뉴스

김하성 '아בל사'... 또 고장 났나

경기 중 허리 통증으로 교체된 탬파베이 레이스의 주전 유격수 김하성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정확한 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하성은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를 마친 뒤 MLB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도루) 슬라이딩할 때 강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더라"라며 "경기를 이어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정확한 몸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통증은 비슷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하성은 0-3으로 뒤진 2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을 얻은 뒤 2루 도루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꼈다. 통증을 참고 경기를 이어간 그는 3회 초 수비에서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화이트삭스와 홈경기 통증 호소 2회 말 도루 성공 후 허리에 무리 3회에 수비 실수도... 4회 벤치행 "재활 잘 했는데..." 아쉬움 드러내 탬파베이 감독 "상황 두고 봐야"



도루 성공 후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김하성.

1사 1, 3루 위기에서 1루 송구가 빛나기 더뎠던 플레이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상을 감지한 탬파베이 벤치는 4회 초 수비를 앞두고 김하성을 교체했다. 김하성은 잦은 부상에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재활 훈련과 러닝 훈련, 컨디셔닝 훈련 등을 충실히 했다"며 "이번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던 지난해 8월 경기 중 오른쪽 어깨를 다쳐 10월 수술을 받았고, 복귀를 앞둔 지난 달 오른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훈련을 중단했다.

그리고 복귀전인 지난 5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도루하다가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고, 복귀한 뒤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케빈 캐시 탬파베이 감독도 답답하다. 캐시 감독은 김하성에 대해 "정

확한 컨디션은 내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부상 선수가 속출하고 있는데, 힘든 시기를 잘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탬파베이는 최근 주전 2루수 브랜던 로가 족저근막염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여기에 주전 유격수 김하성이 빠지면 센터라인이 뿌리째 흔들린다. 김하성의 부상 정도와 회복 속도에 이목이 쏠린 이유다.

이날 탬파베이는 3-8로 무너져 2연패를 당했다.

MLB닷컴은 "탬파베이가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4위에 머물러 있지만, (총 3장이 주어지는)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3위 보스턴 레드삭스를 1.5경기 차로 쫓고 있어서 포스트시즌 진출을 포기하진 이르다"며 "주축 내야수들의 부상 회복 속도가 팀 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성은 이날 1타석 1볼넷 1도루를 기록했고 시즌 타율은 0.226을 유지했다.

스카이텔레그래프 연합뉴스

18G 연속 무패 '탁공' 전복 천하

승점 48 득주, 2위와 12점 차... 포켓 감독 부임 후 압박 공격 부활

"승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20일 울산 HD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홈 경기를 앞둔 FC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킥오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치고 올라갈 기회를 제대로 못 살려 왔다. 승점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치열해진 순위 싸움을 격려했다.

김 감독의 말 대로 올 시즌 K리그1은 그 어느 때보다 승점 관리가 강조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시즌 초반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다소 부진한 듯했던 전북 현대가 6라운드부터 무섭게 치고 오르면서 22라운드까지 무려 18경기 연속 무패(13승 5무)를 내달리며 '독주 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승점 48을 쌓은 전북이 휴치

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2위는 위태롭기만 하다. 3위 김천 상무(승점 35)가 승점 1차로 뒤쫓는 가운데 4위 서울(승점 33), 5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32), 6위 광주FC(승점 31)까지 촘촘하게 대전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 라운드가 끝날 때 2~6위 순위가 바뀌는 '뜨거운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K리그 1은 33라운드까지 결과를 토대로 우승팀을 결정하는 파이널A(1~6위)와 강등 팀을 확정하는 파이널B(7~12위)로 나뉘어 잔여 5라운드를 치른다.

현재 전북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이미 현재에선 '우승은 때려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거스 포켓 감독 부임하며 수비 안정화를 통해 특유의 '탁공'(탁치고 공격)이 살아난 전북은 2021년 이후 4년 만의 왕좌 복귀를 희망한다.



전북 김파노



1루에서 세이프 되는 이정후(오른쪽).

AP=연합뉴스

내야 안타 쳤는데... 수비 실수로 이정후 시무룩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전 외야수 이정후(26)가 행운의 내야 안타를 기록했으나 수비에선 아쉬운 플레이를 펼쳤다. 이정후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의 성적을 냈다. 시즌 타율은 0.249를 유지했다.

그러나 후속 타선의 침묵으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정후는 행운을 이어가지 못했다. 오히려 6회 말 수비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 그는 2사 2루에서 드레이크 볼드윈의 평범한 뜬 공을 잡지 못했다.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씨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에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

박재욱 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벌콘텐츠